

# 강진군, 폭염 취약계층 건강 보호 총력

강진군이 지난 19일 폭염 예방 대책의 하나로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쿨토시, 양산 등 폭염예방물품을 각 읍·면에 배분하며 주민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군은 11개 읍·면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예방물품을 직접 전달하면서, 안부 확인과 건강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폭염 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군은 기상청의 폭염특보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단계에 맞춘 선제적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지원사, 마을순찰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강

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무더위쉼터 293개소에 냉방비를 지원하고, 읍내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며, 폭염특보 발효 시 냉방시설 점검과 이용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올여름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폭염 대응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폭염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군은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예방물품을 배부하고 안부 확인 등 건강 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무더위쉼터 운영과 살수차 운행,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폭염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전윤재 기자



군동면사무소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폭염예방물품을 배부하며 여름철 건강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 무안군, 청계만 해역에 주꾸미 종자 10만 마리 방류

무안군은 주꾸미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23일 무안군 북길항 인근 청계만 해역에 주꾸미 종자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주꾸미 종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방류 현장에는 북길어촌계가 어선 2척을 지원하는 등 협조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는 지난해 낙하·대하·갑오징어 종자를 무안군에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대하 종자를 제공하는 등 지역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군은 이번 주꾸미 종자 방류가 청계만 해역의 생태적 활력을 높이고 지역 어업인의 생산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 및 어촌계와 협력해 청계만 해역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용운 기자

## 목포상공회의소, 안전보건 설명회 개최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전국상의 순회 설명회

/목포 시청 제공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지난 6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전국상의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회원사 대표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용근 과장이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교육'을 주제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위험성평가 개요 등의 순서로 설명했다.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성태 기자

## 함평군, 농촌진흥청과 함께하는 아열대 채소 현장 컨설팅 성료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과 함께 아열대 채소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과 함께 관내 아열대 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 컨설팅은 최근 기후 변

화로 인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주목받는 아열대 채소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병해충·작물 관리 등 농작물 재배 기술을 전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는 농촌진흥청 소속 토양·병해충·작물 관리 분야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전문가들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 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고, 농가별 맞춤 해결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현장에서 즉각적인 토양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작물 생육을 방해하는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사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더욱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영농 지도가 진행됐다.

/이문수 기자

## 신안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성과

신안군 청년농업인 이지훈 대표가 운영하는 스마트팜 기업 이지팜(Easy Farm)이 식품 제조 전문기업 남도농산(정대운 연구소장)과 신안농산물을 활용한 웰니스 제품 공동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2일에 체결했다.

이지팜은 신안군의 2024년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순환식 분무수경 방식으로 유리피안 업체류를 재배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 원물 판매에 그치지 않고 가공·브랜드·유통으로 연계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지팜은 장 건강과 휴식 루틴을 콘셉트로 한 'Easy Care'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남도농산은 제품 제조와 품질관리, 유통 및 수출 전략에 협력할 예정이다.

/박성태 기자

## 영암군, 폭염 취약계층 위한 '희망여름 착착착' 캠페인 전개

영암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하혜성)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관내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영암군자원봉사센터는 여름나기 키트를 지원받아 관내 폭염 취약계층 105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 대상 가운데 24가구는 영암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회장 박미숙)의 '건강한 한 끼, 이웃돌봄 매니저' 사업과 연계해 봉사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봉사자들은 물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생활 불편 사항을 확인하는 등 정서적 돌봄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독사 위험군 34명,

은둔자 12명, 장애인 10명, 복지기동대 대상자 25명 등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에게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다.

영암군자원봉사센터는 폭염 취약계층에 여름나기 키트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가고싶은 여름도시

장성호 수변길

영암군수변길(대리)

수변 데크길(왼쪽)

황금빛수변길(대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영로우 시티 Jangseong 장성군